



[남미통신]

## 마리화나 루트 르포: 브라질-파라과이 국경지대를 찾아서

정길화

남미 대륙의 절반에 가까운(47.7%) 면적을 가진 브라질. 브라질은 남미에서 에콰도르와 칠레를 제외한 모든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이런 브라질의 육상 국경선은 17,000km에 달한다. 현재 남미에서 브라질과 군사적으로 적대적인 나라는 없다. 하지만 국경선이 길어서 아무래도 인적·물적 통제에 대한 부담도 크다. 특히 최근 들어 주변 스페인어권 남미 국가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지리멸렬하다보니(?) 이들 나라로부터 바야흐로 세계 경제 6위의 떠오르는 나라 브라질로 쏠리는 현상이 점증하고 있다.

특히 볼리비아, 파라과이, 페루 등 스페인어권의 일부 국가가 그러하다. 이들에게 미국은 너무 멀고 브라질은 상대적으로 가깝다. 침체된 국내 경제에서 먹고 살 궁리를 찾는 이들은 일단 브라질에 들어가면 일자리도 구할 수 있고,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얻을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브라질에는 결코 달가울 리 없는 것. 불법 체류자나 밀수, 마약 밀반입 등이 최근 브라질의 새로운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마약 문제는 최근 브라질이 마약의 경유지에서 소비지가 되면서 브라질로서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상파울루에서 브라질 TV방송을 모니터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볼리비

아, 파라과이 등 국경지대의 마약 단속 상황을 볼 수 있다. 파라과이 국경 쪽 파라나 주에 있는 277번 도로에서는 파라과이에서 유입되는 마약이 자주 적발된다.

대량의 마리화나, 코카인 등을 일반 화물로 보이게 하거나 목재처럼 위장하고, 차량을 개조하여 마약을 숨기는 등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들어오다 검문검색에 걸리는 상황이 등장한다. TV 앵커는 이 277번 도로를 ‘범죄의 도로’라고 단언하고 있었다. 그런가하면 상파울루, 리오 등 대도시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촌 단속 뉴스도 자주 볼 수 있다.

브라질에서 문제가 되는 마약류는 주로 코카인과 코카인의 변형인 크랙커다. 또 마리화나(대마초, 브라질에서는 ‘마콩냐’라고 부른다)도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코카인의 경우 대부분 인접국가에서 유입되어 브라질을 거쳐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데, 마리화나는 상당 부분이 브라질에서 소비된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브라질 내에서 코카인의 소비도 늘어나고 있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종종 합법화 시비가 나오는 마리화나에 비해 코카인은 훨씬 중독성이 강하고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 코카인은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 강력 사건을 유발하는 등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것도 중요한 이유로 보인다.

취재를 시작하면서 상파울루의 관문인 과룰류스(Guarulhos) 국제공항의 안토니우 카스칠류(Antonio Castilho) 서장부터 만났다. 그의 임무는 이민국 관리와 대테러 등 안전 유지, 그리고 국제 마약운반, 인신매매, 밀수, 화폐 밀반출 등을 적발하는 수문장 역할이다. 과룰류스 공항은 브라질로 들어오는 사람과 화물의 관문이며 제3국으로 나가는 통로이기도 하다. 카스칠류 서장은 마약 문제에 관하여 단호히 “브라질에서는 1g의 마약도 생산되지 않는다. 브라질은 마약 생산국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에 따르면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이상 코카인), 파라과이(마리화나)가 마약의 생산국이고,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마약은 없다는 것이다.

카스칠류 서장은 그 주된 이유로 “브라질에는 코카 재배지가 없다”는

것을 들었는데, 당장은 그의 말을 확인하고 검증할 방법은 없었다. 브라질과 국경을 마주 하고 있는 나라들이 모두 유명한 코카 산지인데 국경선이 식물의 생장 한계선도 아닌 바에 국경 근처 브라질 국내에서 정말 단 한 건의 코카 재배도 없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그는 “1kg의 코카인을 생산하려면 27kg의 코카 잎이 있어야 하는데 1kg의 코카인을 위해서 27kg의 코카잎을 가져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브라질로 들어오는 코카인은 천연 코카가 아닌 생산된 제품 형태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 결과 브라질은 마약을 소비하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고 동시에 국제 마약범죄단이 이용하는 마약의 경유지역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과룰류스 공항에도 마약 탐지견이 있다. 올 8월이면 퇴역하는 자팔이라는 7살짜리 수컷 마약탐지견은 그동안 600kg이 넘는 마약을 적발해 냈다고 한다. 과룰류스 연방경찰은 2011년에 1.5톤 이상의 코카인을 적발했고 70여 개국 국적 400여 명을 체포했다고 한다. 본 특파원이 취재를 간 그 날도 동구권 국적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마리화나를 들여오다 검거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이틀 전에는 다량의 코카인을 배(腹)안에 넣고 들어오던 운반책이 공항 X레이 검색기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브라질과 접경국인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는 세계 3대 코카 생산국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자료 기준 2010년 말 현재 코카잎 재배면적은 콜롬비아 6만2천ha, 페루 6만1천200ha, 볼리비아 3만1천ha 등이다. 물론 천연 코카잎이 곧 마약 코카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코카 재배농 출신인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은 유엔에 가서 직접 코카잎 씹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천연 코카잎을 소비하는 것은 안데스 지역의 고유문화”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기실 코카잎은 코카인과는 다르다. 하지만 천연 코카잎이 화학적 제조과정을 거쳐 마약 코카인으로 변신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브라질에 코카인이 들어오는 유입 경로를 보면 볼리비아가 제일 두드

러진다. 최근 《에스타도 지 상파울루》 등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에 불법 반입되는 코카인의 절반 이상이 볼리비아산이라고 한다. 브라질 연방경찰(Policia Federal)은 "브라질 국내로 불법반입되는 코카인의 54.3%가 볼리비아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그 뒤를 이어 페루산은 38%, 콜롬비아산은 7.5%였다. 브라질로 불법반입되는 코카인의 상당량은 비행기와 배를 통해 들어온 뒤, 일부는 브라질에서 소비되고 대부분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필두로 북미, 아시아 지역까지 이동한다고 한다.

브라질이 마약의 유통기지화한다는 것은 다른 뉴스에서도 곧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월 유럽연합은 브라질이 코카인 국제 이동 루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경찰(Europol)은 2011년부터 브라질이 유럽 마약시장의 주요 통로국으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 유통되는 마약의 1/3정도(250톤)가 남미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한다. 이 중 절반 정도는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에서 오는데 모두 브라질을 거쳐서 유럽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특히 브라질 북동부 항구가 주요 경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태평양과 대서양(카리브 해)를 안고 있는 콜롬비아, 태평양과 콜롬비아 등 다른 육로 루트를 가지고 있는 페루에 비해, 내륙국인 볼리비아의 마약업자들은 브라질을 주 유통경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길고 긴 브라질의 국경선 중 볼리비아와의 국경은 3,100km에 이른다. 안데스 산맥, 판타날(Pantanal) 습지 등 열악한 지형과 그로 인한 허술한 국경 경비를 틈타 코카인 범죄조직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마침내 브라질과 볼리비아 당국은 늘어나는 코카인 밀반입을 막기 위하여 국경지대에서 양국 군대의 합동작전인 볼브라(BolBra) 작전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공군의 비행기까지 동원되는 대대적인 작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파원으로서 이 볼브라 작전을 답사하고자 브라질 군 당국에 취재 신청을 해놓고 있으나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파라과이의 마리카나 밀반입 실태의 취재에 나섰

다. 파라과이는 코카인보다는 마리화나를 대대적으로 생산하는 곳이다. 파라과이에서 마리화나를 생산하는 마약범들은 이를 대부분 브라질로 몰래 들여오고 있는데 이 마리화나는 다른 나라로 이동되지 않고 거의 전량 브라질에서 소비된다는 것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브라질에서 유통, 소비되는 마리화나 물량 중 20%는 브라질 내에서 공급되었고 80%는 파라과이를 통해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코카 밀반입 실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일단 파라과이의 마리화나 밀반입 실태를 답사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마리화나에 관해서는 일각에서 비범죄화, 합법화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에는 브라질의 리오나 상파울루 도심에서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위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 이는 브라질 연방최고재판소가 이같은(마리화나 합법화를 요구하는) 의사표현을 정당한 권리로 인정한 이후 나오는 시위다. 지난 6월에는 우루과이 정부가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선언하고, 나아가 정부가 마리화나를 직접 팔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물론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범죄 예방 차원에서 마리화나 판매를 독점하고 등록된 성인들에게만 팔겠다는 것이지만 매우 파격적인 내용이다.

이미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등 남미의 전직 대통령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미국이 주도한 ‘마약과의 전쟁’을 실패로 규정하고, 처벌 위주의 마약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마라화나 등 마약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해 오고 있다. 전직대통령위원회는 단속과 처벌 위주의 기존 마약 정책은 인권을 침해하고 빈곤상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의 강력한 마약 대책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마약 소비량은 10~35% 가까이 늘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열린 미주 정상회의에서도 이같은 논의가 또 한 번 제기된 바 있다.

이렇듯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안데스 구상’ 이후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이 수행한 대(對)마약 전쟁의 정당성이나 실효성 등에 대한 논의는<sup>1)</sup>

진지하고도 집중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럴 만한 역사성과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

하지만 현장을 답사하고 팩트를 취재하는 특파원으로서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UNODC에 따르면 남미의 주된 마약은 마리화나라고 보고 있다. 2009년 통계에 따르면 남미의 15~64세 사이의 마리화나 중독자는 동 연령 인구의 3%에 달한다고 한다. 마리화나 소비에서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는 나라가 브라질로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소비량이 두 배로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다.<sup>2)</sup>

‘차라리 차제에 합법화하자’는 식의 논의는 하나의 교육지책이라고 보고 싶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마리화나에 대한 비범죄화 논의는 미국 주도의 대마약 전쟁에 대한 실효성 문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정치적, 역사적으로 누적된 대미 반감 등에서 왔다고 생각해 본다. 그러나 그렇다고 마리화나의 유해성이나 우범성(虞犯性)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풍선 효과(balloon effect), 깨진 창문 이론(broken window theory) 등 반박 논리도 무성하다. 통제와 단속이 어렵다고 인신매매나 살인도 합법화할 것이냐는 반론은 극단적인 것이라 쳐도 마약 합법화 논의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브라질-파라과이 국경지대로 르포 취재답사를 출발하기에 앞서 인터넷으로 관련 기사를 검색하니 2010년의 경우 파라과이 경찰이 같은 해 1월부터 10월까지 무려 23톤의 마리화나 잎을 압수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파라과이 국경도시인 시우다드 델 에스테(Ciudad del Este)가 모든 마약밀거래의 중심지가 되고 있으며, 볼리비아에서 들어오는 코카인도 여기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파라

1) 콜레타 A. 영거스, 「위험한 결과 —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대마약전쟁」, 에릭 허쉬버그·프레드 로젠, 『신자유주의 이후의 라틴 아메리카』, 모티브북, 2008, p. 110.

2) 루시아 담메르트, 「라틴아메리카 마약과 치안불안정」,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편), 『2010 라틴 아메리카 경제위기와 지속 가능한 발전』,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10, p.290.

과이산 마약은 주로 이타이푸 호수와 파라나 강을 통해 밀반입이 이루어 지는데 파라과이 내에서는 처벌이 경미해 ‘남미의 홍콩’으로 불리우는 시우다드 델 에스테가 마약거래상들의 본거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뒤이어 2010년 12월에는 브라질 연방경찰이 파라과이 국경과 가까운 브라질 접경지대에서 무려 10.6톤 상당의 마리화나를 압수했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다. 파라과이 경찰이 놓친 것인가? 흘린 것인가? 그 중 7.4톤은 파라나주 이타이푸 호수 근처의 잡초 더미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 마약은 상파울루와 리우의 범죄조직들이 공모해 구매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마약 범죄단이 소형 보트를 이용해 이타이푸 호수 건너로 마약을 운반한 뒤, 상파울루와 리우 등 대도시 지역에 마라화나를 대대적으로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두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지명은 이타이푸(Itaipu) 호수다. 이 호수는 브라질과 파라과이가 1975년부터 1991년까지 공동으로 양국의 국경인 파라나강에 이타이푸댐을 건설하면서 만들어진 인공호다. 저수량 2천억톤으로 중국의 산샤댐 완공 전까지는 세계 제일을 자랑했다고 한다. 이 댐으로 인해 광대한 호수가 형성되는데 이 유역은 수상 경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마약밀수범에게는 밀반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남미 제2의 강인 파라나강은 이타이푸 호수를 거친 후 이과수강과 만난다. 이과수……. 어디서 많이 듣던 지명이 아닌가. 바로 그렇다. 이과수강의 상류에는 세계 최대의 이과수 폭포가 자리잡고 있다. 결국 취재 답사는 이타이푸 호수와 이과수 폭포로 향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이면서 마리화나의 유통 경로가 되는 것이다.

브라질과 파라과이의 국경지대에는 파라과이의 시우다드 델 에스테가 있다. 이곳을 가려면 브라질의 국경 도시 포스 두 이과수를 가야 하는데 이곳은 이과수 폭포 관광 거점 도시로, 이과수 강 건너 아르헨티나의 푸에르토 델 이과수와 마주하고 있다. 이곳 역시 폭포 관광의 거점이다. 이과수 폭포는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물론 파라과이와도 접경하고 있는 것



시우다드 델 에스테

이다. 3국이 만나는 지점에는 모두 국경을 알리는 기념비가 서 있다.

덕분에 브라질 도착 이후 처음으로 이과수 폭포도 가게 되었다. 마약 루트 취재에 세계 7대 경관의 하나인 이과수 폭포를 가는 것은 사뭇 이질적인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사실 이타이푸 댐이 있는 파라나(Parana) 강과 이과수 폭포가 있는 이과수(Iguacu) 강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3국의 경계를 이루면서 이 일대에서 밀수, 마약 밀반입 등의 범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니 대자연의 웅장함 앞에서도 겸손할 줄 모르는 인간의 이기심과 분별없는 욕망이 대비된다.

앞서 상파울루 과룰류스 공항의 카스칠류 서장은 “경찰이 경계를 잘 서면 마약이 못 들어올 것 아니냐”고 짐짓 들이대는 본 특파원의 질문에 “브라질의 국경선이 너무 길다. 마약범들은 국경 도시나 다리를 통해서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경찰력이 취약한 지역을 어떻게든 찾아서



넘어온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거나 소형 비행기로 레이더에 안 잡히도록 저공 비행을 하는 방법으로도 들어온다. 끝없는 숨박꼭질이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먼저 포스 두 이과수에 도착한 뒤 차량으로 파라과이 시우다드 델 에스테를 향한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두 도시를 이어주는 브라질-파라과이 국경인 ‘우정의 다리’가 일대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때마침 브라질 연방경찰과 세관이 합동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날의 특별 검문검색은 현지에서는 포르투갈어로 ‘오페라성’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오퍼레이션(operation)이니 쉽게 말해서 ‘작전 떴다’는 얘기다.

단속의 주 타겟은 파라과이에서 들어오는 차량과 사람들에 대한 정밀 검색일텐데 이미 아침 일찍부터 도로 양쪽의 교통이 마비상태다. 800m 남짓의 우정의 다리에는 평소 하루 약 2만 대의 차량과 15,000 명이 도보로 이동을 한다고 한다. 이 다리가 꽉 막힌 채로 차량과 오토바이 등이 늘어서서 검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모두 아우성이다. 국경지대면 흔히 볼 수 있는 보따리상 아줌마들이 “오늘은 장사 글렀다”고 이구동성이다. 리오에서 왔다는 한 젊은이는 ‘우정의 다리’가 마약이 들어오는 루트라면서 이 날의 일제 검색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했다.

다리 위에서 브라질 연방경찰 관계자인 플로렌시노(Florencio)를 만나 보았다. 그는 오늘 작전이 국경을 출입하는 양쪽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브라질에서 파라과이쪽 출국 방향에서의 주안점은 도난 차량 확인 및 돈 세탁이 의심되는 자금 등을 검문하는 것이고, 브라질로 들어오는 입국 방향에서는 관세 자유지역인 파라과이 시우다드 델 에스테로부터의 과다한 물품 반입이나 허용되지 않은 상품의 밀반입을 검색한다는 것이다. 1인당 반입이 허용된 미화 300불이 넘을 경우는 규정에 따라 적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바로 예의 보따리상들이 대상이다.

이런 특별 검문을 통해서 마약이나 밀수품을 적발하기도 하는데, 작전의 주 목적은 범죄인들이 아예 국경을 넘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있다

고 했다. 즉 일제단속을 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수시로 불시에 이같은 작전을 전개하는데 대개는 3개월에 한 번 정도라고 한다. 단속의 확실성 측면에서는 단속 횟수가 너무 적고, 사실상 랜덤에 해당될 텐데 마약 차단 효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들었다.

이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은 가능한 모든 인력이 동원되어 특별 검문검색을 하고 있는데, 주목적은 기존의 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검문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불법으로 마약이나 총기류가 들어오는 것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매일 이런 검문검색이 이뤄져야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고위 당국자나 국민들에게 일부러 보여주는 목적이라고 한다. 수궁이 가는 점도 있지만 누구인가 보여주기 위하여(안 보여주면 모르나?) 전시성 단속으로 인하여 하루 종일 국경지대의 교통이 마비되는 것에는 대략난감……. 어이가 없기도 하다.

이어서 만난 포스 두 이과수의 기예르미(Guillermi) 연방경찰서장은 이 도시가 지역 특성상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매우 어려운 곳이라고 애로점을 토로했다. 그에 따르면 파라과이는 세계 최대 마리화나 생산지로서, 생산된 모든 마리화나는 브라질로 들어오는 상황이라 이를 전담하는 팀이 별도로 있다고 한다. 또한 밀수 단속팀은 파라나강과 이타이푸 호수, 그리고 우정의 다리에서 집중적인 활동을 한다고 설명했다. 기예르미 서장에 의하면 2011년에 포스 두 이과수 관내에서 압수된 밀수품이 6천7백만 헤알 상당이었으며, 33톤의 마리화나를 압수했고 700 kg의 코카인을 압수했는데 이는 브라질 역내에서 압수된 것 중 최대의 수량이라는 것이다.

기예르미 서장은 파라과이가 전 세계의 상품들이 모이는 곳인데 원치 않는 물품이 브라질로 밀수입되는 것들 막고,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범죄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몇 번씩이나 임무의 위중함을 강조했다. 그의 관할 구역은 이과수 지역의 파라나 강 일대

18km의 국경선과 이타이푸 호수 지역 1,300km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다. 그는 파라과이와 국경을 이루는 육로와 파라나 강 등에서 수많은 차량과 선박 등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단속보다는 경찰정보력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토로했다. 심지어 현지에서 모토보이로 불리는 오토바이 택배를 통해서도 마약이나 총기류가 밀반입되고 있다니 단속에는 끝이 없다. 브라질 당국은 국경지대의 만성적인 경비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 국경선에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요원 1,200명을 선발 중에 있는데, 2013년 1월부터 포스 두 이과수 지역에도 증강 인력이 배치될 계획이라고 한다.

경비와 단속을 주임무로 하는 국경 제일선의 연방경찰로부터 최근에 들어와 왜 브라질에 이처럼 마약류 소비가 늘어나는지에 대한 원인과 진단을 듣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는 최근 브라질의 젊은 층에서 코카인과 마리화나 소비가 늘고 있는 점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점은 마약 예방에 대한 정부의 캠페인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신으로서는 국경을 통과한 마약이 대도시의 청소년에게 투입되고 또 상당량이 유럽으로 가게 되므로 최선을 다해 경비와 단속을 할 뿐이라는 각오를 피력했다. 브라질 경찰 직제상 연방경찰(policia federal)은 국제적인 마약 밀반입을 적발하고, 소비지역에서의 관할은 군경(policia militar)과 민경(policia civil)이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고 한다.

기예르미 서장은 작년에 포스 두 이과수 관내에서 적발한 마리화나가 33톤이나 되었지만 분명 국경을 통과해서 들어간 마약이 있기에 대도시에서 마리화나가 소비되고 있는 것 아니겠냐는 자탄을 하기도 하였다. 그는 브라질 연방경찰이 더욱 체계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현장에 요원들을 투입한 결과, 코카인의 경우 2010년 200kg에서 작년에 3배 이상인 700kg까지 실적을 올렸다면 현장에서 검색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본 특파원이 취재를 간 바로 그 다음날에는 압수한 마약을 소각처리한다고 하였다. 3~4개월에 한 번 꼴로 압수한 마약을 소각로에서 불태워

없애는 것이다. 이게 웬 떡(?)이냐 해서 그 장면을 꼭 촬영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취재진에게는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아무리 부탁과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비공개리에 불태우고 다만 그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1주일 뒤 파라나 주 연방경찰은 약속대로 화면을 보내왔다.

이날 소각 처리된 마약은 대마초 5,494kg, 해시시 18kg, 코카인 73kg, 크래커 94kg, 엑스타시 3kg 등인데, 이를 국가별로 보면 대마초와 해시시는 파라과이, 코카인과 크래커는 볼리비아와 콜롬비아, 그리고 엑스타시는 유럽이라고 한다. 이들의 유입 루트는 대부분 수상으로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알아본 대로 이타이푸 호수와 파라나 강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육상으로는 우정의 다리를 이용하는데 경비행기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날 불태운 마약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느냐고 했더니 “미안하지만 그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다.

포스 두 이과수 현장 르포. 인간의 미약함을 일깨워주는 장대한 이과수 폭포의 위용에 탄복하다가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3국의 국경지대 수려한 관광지의 뒤편에서 마약사범들과 이들을 단속하는 경찰들과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진다고 하니 입맛이 쓰다. 물론 이과수 폭포 자체가 마약 밀수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마약범들도 ‘거대한 물’(‘이과수’의 뜻) 폭포를 보며 자신의 영혼을 정화했으면 좋겠다.

한편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브라질에서 마약과 관련한 단속법규를 알아보니 다음과 같다.

1. 마약 사용-자기가 사용하기 위해 취득(구입), 보관, 휴대, 운반 등의 경우(제28조)
  - 경고, 사회봉사, 교육과정 수강
  - \* 위의 조치는 단독으로 또는 둘 이상을 동시에 부과 가능(제27조)
    - 사회봉사와 교육과정 수강은 최대 5개월, 재범인 경우 최대 10개월까지 가능

-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고, 사회봉사, 교육과정 수강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사가 구두 경고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2. 마약 거래 및 제조 등 - 수입, 수출, 제조, 재배, 판매 목적 운반 등 마약 제조, 생산, 판매와 관련된 제반 행위 (제33조)

- 5~15년의 징역, 일일 500~1,500 헤알의 벌금

3. 마약 사용을 권유, 유혹하거나 도와주는 행위 (제33조 2항)

- 징역 1~3년, 일일 100~300 헤알의 벌금

4. 아는 사람에게 마약을 영리목적 없이 제공하는 경우(제33조 3항)

- 6월~1년의 징역, 일일 700~1,500 헤알의 벌금

5. 마약 제조, 생산, 사용 등과 관련된 도구, 기구 등을 제조, 생산, 거래, 판매 등 제반 행위 (제34조)

- 3~10년의 징역, 일일 1,200~2,000 헤알의 벌금

6. 제33조, 제34조의 범행을 위해 2인 이상의 모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제35조)

- 3~10년의 징역, 일일 700~1,200 헤알의 벌금

7. 제33조, 제34조의 범행을 위해 자금 등을 제공하는 경우(제36조)

- 8~20년의 징역, 일일 1,500~4,000 헤알의 벌금

8. 제33조, 제34조의 범행을 위해 단체, 조직 등의 정보원으로 함께 일하는 경우(제37조)

- 2~6년의 징역, 일일 3,00~7,00 헤알의 벌금

[자료 상파울루 총영사관 제공]

1헤알은 한국돈으로 대략 650원 꼴이니 100헤알이면 6만5천원 상당이다. 마약을 권유, 유혹하거나 도와주는 행위시 벌금 최소액이 이 금액이다. 위의 규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특이한 것을 볼 수 있다. 28조에 보면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 취득(구입), 보관, 휴대, 운반 등의 경우는 경고, 사회봉사, 교육과정 수강”으로 되어 있다. 즉 보다시피 마약의 단순 사용자에게 대한 강력한 규정은 현행 브라질 법규에는 없다. 처벌이 경미한 것이다. 그래서 브라질의 마약이 쉽사리 근절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얼마 전에는 상파울루의 코리아 타운인 봉 헤치로(Bom Retiro) 근방 크라콜란지아라는 마약촌에 경찰이 일제 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밀려난 마약꾼들이 인근 한인타운에 출몰한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다. 브라질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현실에서 체감하고 있는 셈인데 이 근처를 지날 때 혹은 도로에서 구걸을 하거나 물건을 파는 사람만 보아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다.

안 그래도 노상강도가 심하다는 상파울루에서 자가운전은 썩 내키는 일이 아니다. 루시아 담메르트에 의하면 “모든 마약이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일으키지는 않는다”<sup>3)</sup> 것이 사실이라 해도, 마약이 공공연한(또는 그런 것으로 느껴지는) 곳에 사는 외국인에게 상파울루의 환경은 여전히 간단치 않다.

---

정길화 — PD, MBC 주상파울루 중남미지사장 겸 특파원

---

3) 앞의 책, p. 299.